
동독의 함흥 재건

디자인 건축 분과_홍남명
(협력 연구 with Lena Hecker)



2021년 10월 21일, VeKNI_Webina

서론

1. 남겨진 페넌트. 그 속에서 드러난 동독의 함흥재건

후버트 마테스(Hubert Matthes)의 유품



그림 1 : 후버트 마테스가 받은 페넌트의 앞면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그림 2 : 후버트 마테스가 받은 페넌트의 뒷면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그림 3 : 함흥시 총계획도와 후버트 마테스에 보내는 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본론

2. 역사적 배경

2.1 함흥과 흥남의 역사



그림 4 : 《함흥에서의 과거시험》 (저작권: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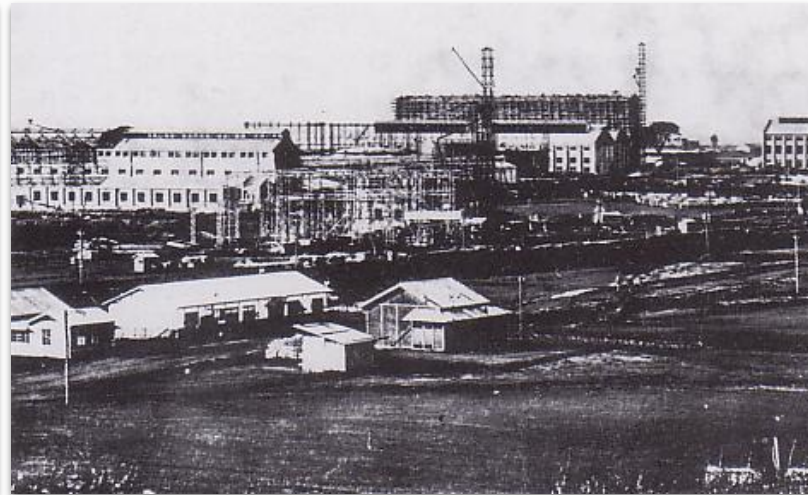


그림 5 : 함경남도 함흥시 운전면 흥남리에 있는 질소비료주식회사(窒素肥料株式會社)의 공장 모습 (저작권: 서울역사박물관)

본론

2. 역사적 배경

2.2 동독의 대북 연대 지원



그림 6 : 1958년 독일 작업단이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그림 7 : 후버트 마테스가 촬영한 사진. 우측 남성은 오토그로테볼로 추정.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1 1950년대와 1960년대 동독의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그림 8: Die DDR-Regierungsdelegation am 12. April 1950(저작권 위키미디어 CC BY-SA 4.0)

그림 9 : Die 16 Grundsätze des Städtebaus (저작권: <https://www.metalocus.es/>)

Grundsätze des Städtebaues

Vo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m 27. Juli 1950 beschlossen

Die Stadtplanung und die architektonische Gestaltung unserer Städte müssen der gesellschaftlichen Ordn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den fortschrittlichen Traditionen unseres deutschen Volkes sowie den großen Zielen, die dem Aufbau ganz Deutschlands gestellt sind, Ausdruck verliehen. Dem dienen die folgenden Grundsätze:

1. Die Stadt als Siedlungsform ist nicht zufällig entstanden. Die Stadt ist die wirtschaftliche und kulturelle Siedlungsform für das Gemeinschaftsleben der Menschen, was durch die Erfahrung von Jahrhunderten bewiesen ist. Die Stadt ist in Struktur und architektonischer Gestaltung Ausdruck des politischen Lebens und des nationalen Bewusstseins des Volkes.
2. Das Ziel des Städtebaus ist die harmonische Befriedigung des menschlichen Anspruches auf Arbeit, Wohnung, Kultur und Erholung. Die Grundsätze und Methoden des Städtebaus ruhen auf den natürlichen Gegebenheiten, auf den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Grundlagen des Staates, auf den höchsten Errungenschaften von Wissenschaft, Technik und Kunst, auf den Erfordernissen der Wirtschaftlichkeit und auf der Verwendung der fortschrittlichen Elemente des Kulturerbes des Volkes.
3. Städte „an sich“ entstehen nicht und existieren nicht. Die Städte werden in bedeutendem Umfange von der Industrie für die Industrie gebaut. Das Wachstum der Stadt, die Einwohnerzahl und die Fläche werden von den städtebildenden Faktoren bestimmt: das heißt von der Industrie, den Verwaltungsorganen und den Kulturstätten, soweit sie mehr als örtliche Bedeutung haben. In der Hauptstadt tritt die Bedeutung der Industrie als städtebildenden Faktoren hinter die Bedeutung der Verwaltungsorgane und der Kulturstätten zurück. Die Bestimmung und Bestätigung der städtebildenden Faktoren ist ausschließlich Angelegenheit der Regierung.
4. Das Wachstum der Stadt muß dem Grundsatz der Zweckmäßigkeit untergeordnet werden und sich in bestimmten Grenzen halten.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1 1950년대와 1960년대 동독의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그림 10~11 : 동베를린의 (구)스탈린알레/(신)칼막스알레(Stalinallee/Karl-Marx-Allee), 노동자 계층의 도시 할례 노이슈타트(Halle-Neustadt) 도시 계획. 스탈린알레/칼막스알레는 1949~64년에 동베를린에 지어졌다. 도시 경관을 특징짓는 대로는 대표적인 동독 도시 계획을 보여준다.

그림 10 : 베를린 칼막스알레의 일부인 스트라우스베르거 플라츠(Strausberger Platz)의 모습. 1950년대 초,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전통(Nationale Traditionen)“을 따른 대표적인 건물이다. (촬영: 레나 해커)

그림 11 : 스트라우스 베르거 플라츠 건물의 입면도. (저작권: IRS Erkner, Signatur IRS_A_13_01_03-02)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1 1950년대와 1960년대 동독의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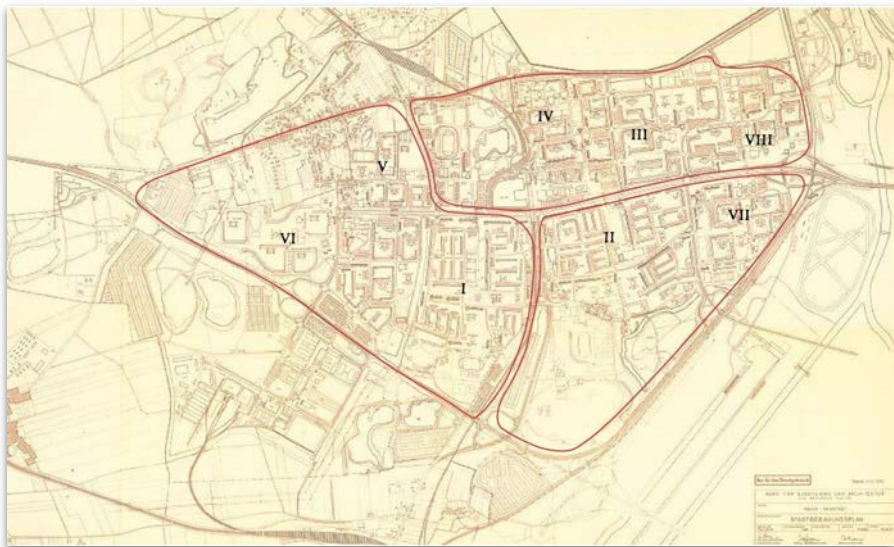


그림 12~13 : 1960년대 초 노동자의 도시 할레 노이슈타트(Halle-Neustadt)가 새로 지어졌으며, 이곳은 동독 건축의 산업화를 보여준다. 할레 노이슈타트의 건축사업은 할레의 외곽에 약 7만 명의 주민에게 약 2만 2천 채의 새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했다. 도시 지역의 모든 시설은 주거단지(Wohnkomplex)에 조직되었다. 도시의 중심부에 문화적 역할을 하는 건물들이 들어섰다.

그림 12 : 할레 노이슈타트의 개발 계획. 빨간색은 주거단지이며 기본 도시 계획 단위. (저작권: IRS Erkner, Signatur IRS_A_05_07_08-01)

그림 13 : 할레 노이슈타트의 산업화된 주택의 건물 형태.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장식이 없고 단조롭다. (저작권: 레나 헤커 본인 촬영)



그림 14 : 마테스가 촬영한
 함흥시 계획 모형.
 방사형의 길과 블록 형태가
 잘 드러난다.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3 b. 주거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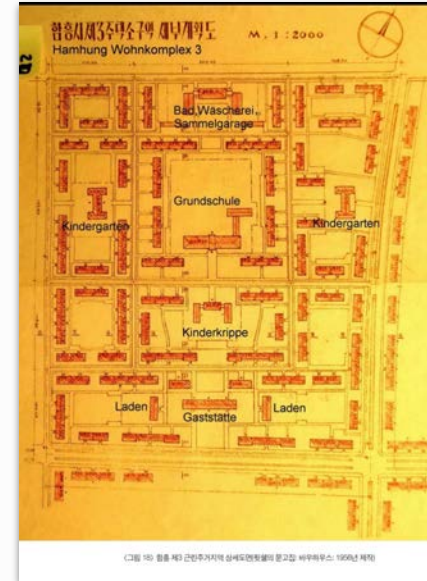


그림 15 : Luftbild von Berlin-Mitte: am oberen Bildrand Quartiere in Blockrandbebauung, unten eine offene, siedlungsartige Bebauung der Moderne (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그림 16 : 함흥시 제 3 주택 소구역 세부계획도(원 저작권: 바우하우스 문고집, 신동삼: 함흥시와 흥남시의 도시계획)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3 c. 광장



그림 17 : 콘라드 뤼셀(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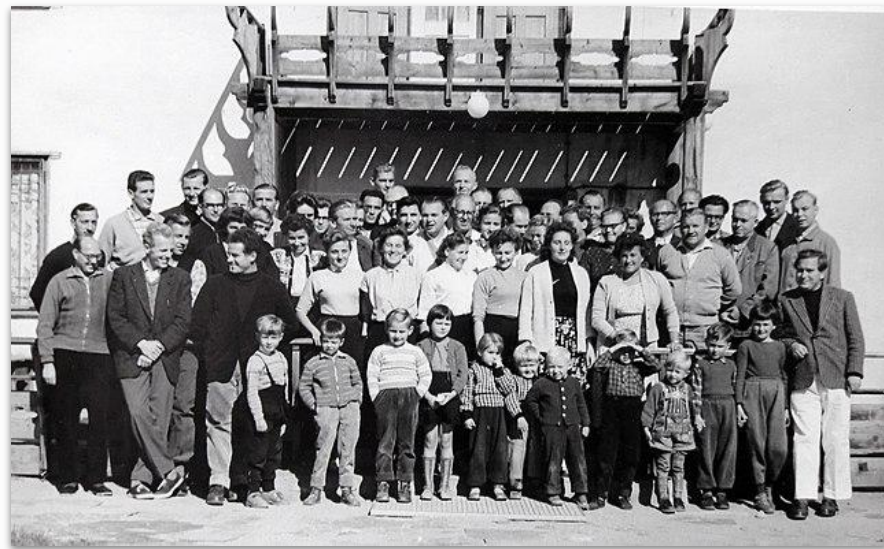


그림 18 : 스트라이프 가디건 아이 뒤, 하얀 옷을 입은 여성 뒤에 있는 뤼셀(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3 d. 소련·독일·한국 스타일이 융합된 건축 형태와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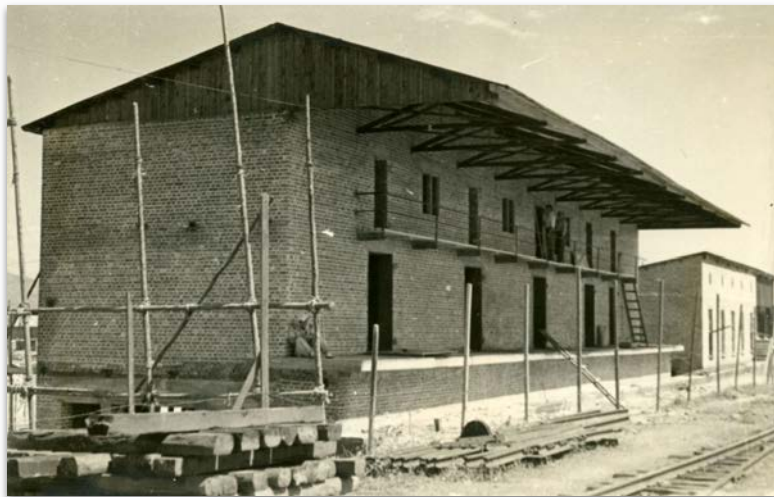


그림 19 : 벽돌을 이용해서 건물이 지어진 모습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그림 20 : 건축물이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 모습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3 d. 소련·독일·한국 스타일이 융합된 건축 형태와 재료



그림 21 : 동독 도시건설 작업반이 거주했던 건축물. 한국 지붕 모양이 드러난다. (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그림 22 : 온돌이 놓인 다층 판형 건축물 (저작권 위키피디아 CC BY-SA 4.0)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4. 독일인과 한국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림 23: 동독과 북한 출신의 작업반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그림 24: 마테스의 앨범 속 독일인과 한국인 (후버트 마테스의 앨범 중 일부. 저작권: IRS Erkner, 촬영: 레나 해커)

본론

2.3 함흥시 재건과정

2.3.4. 독일인과 한국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림 25: 함흥 위성사진 (Google Earth, 2021.10.03. 19.05)



그림 26: 함흥 시내 (저작권 위키미디어 CC BY-SA 3.0)

결론

3. 남겨진 연구 질문

편협한 이미지의 한계를 넘어서기

"철의 장막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도시 계획, 주택, 건축의 발전은 고립된 외딴곳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항상 국제적이고 시대정신의 흐름에 통합되었다. 바우하우스 후계자들, CIAM 운동,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연방 공화국, 소련, 그리고 미국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영국의 뉴타운과 근린 계획과도 관계가 있었다."

- 칼-하인츠 쉘레지에(Karl-Heinz Schlesier)



질문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